

**학복회에서 요즘 하고 있는 일.**

**소식지 발행** - 7월 1일 부터 창간 준비호로 시작하는 소식지는 앞으로 학복회의 소식과 학복회 이야기, 그리고 학생들의 '맘속 이야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토론회** - 2주에 한번씩 열리고 있는 토론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 문제와 교육문제 등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이론부터 감정적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이야기 되어집니다 ^^ 회원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열려있습니다.

**제보받기** - 통신 공간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보를 받고, 제보를 사례화 하여,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팅과 정모** - 정팅(정기체팅)은 매주 토요일 10시(학복회 대화방)에 열리며, 항상 개방되어있습니다. 정모(정기오프모임)는 한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엠티** - 7월 말, 학복회 회원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행사, 엠티를 갖습니다. 친목만이 아니라, '주제'를 정해, '토론'도 할 것 같네요 ^^

✧이 땅의 교육문제와 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학복회**에 대해 잘 알고 싶으신가, 가 입을 원하시거나, 소식지에 글을 실고 싶으신 분은 나우누리 학복회 시삽 나정훈 (나우누리 김밥시대) 015 - 7705 - 0221로 연락주십시오.

**-편집후기-**

첫! 소식지. 풋내가 넘 나나여??~:

시험기간;없는시간 쪼개고 쪼개 만든 눈물나는 우리의 "돌움."

풋내보단 이런 맘내가 더 묻어나지 않나여?~;;;

부족한 편집장의 능력탓으로 흑흑.ㅠ.ㅠ

너 왜 이렇게 못하니? 하며 불만있으신분들!! 바로 의견주세요!!~

소식지 돌움은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첫 소식지 발간에 시험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감사드리구요;앞으로 더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해볼께여~

돌움(+\_+꾸어~)

-소식지 편집부는 나우누리 학복회 go sgsws10 오프 게시판 100-2를 쓰고 있습니다@^^



길/들/여/지/지/않/은/순/수/  
10/대/의/임/찬/함/성/  
- 학생복지회

중고등학생복지회 소식지  
돌! 움 창간준비호 / 나우누리 학생복지회 발행



**학교가기 싫지?**  
-나우 학복회 시삽 - 2p

**통신에서 퍼온 글**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건가?등 - 3p

**나 이거 불만이야 넌 앙그레?**  
별점적 등 - 4p

**그림판**  
호랑이로 보고싶다. - 5p

**이 책 이때?**  
교육문제는 없다.  
단지 학교문제가 있을뿐이다. - 6p

**소식지 낸다면?**  
연세대학교 조한영정 교수 - 7p

## 학교 가기 싫지?



학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아닌데, 그 공부들을 해야해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야.

오늘 저 공부 내용을 이해 하지 못하냐, 마느냐? 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냐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내꿈을 이루기는 힘들데. 나중에 잘못하면 밥먹기도 힘들어진다네? 내 꿈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들이 더 많지만... **어쩔수 없이 해야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애들을 때려. 거의 '폭력'이라 불리는 수준인데 그게 '사랑의 매'래. 그럴때면 일어서서 그 선생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만 말했다가는 나만 '죽음'이야. 요즘은 신중무기가 생겼자나? 별점제라구.. 뭐 자기 뺨대루 주니, 한번 눈 밖에 나면, 난 학교 다니기 힘들어져.

### 말 그대로 인생은 풀

핀놈의 수업시간은 그렇게 긴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잠잘 시간이야.

하루종일 학교에서 시달려서 피곤해. 잠자고 일어나면 학교를 간다. 또...

**으악~ 싫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계획하여, 자신이 원하는 준비를 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냐?

왜 자꾸 내 자유를 억압하는거지?

내 머리카락을 대놓고 가위로 자르고, 핀놈의 **생발**은 그렇게 무식하게 해되는건지.

나만의 시간을 즐길 여유조차 없어.

학교 끝나고 오면, 바로 잠시간이야. 얼마전 야간자율학습(강제타율학습) 때는 집에 10시 넘어서 들어왔다.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하게 친구라고? 친구는 언제 만나냐? 넌 만날 수있니?

학교에 건의라도 할수있니? 학급회의 시간은 거의 자습시간으로 활용되고, 학급회의 때 건의를 해도, '**허수아비 학생회**는 자기 몸사리기 바빠. 선생님들 눈치보기 바쁘지.. 하긴, 학생회에서 뭐 건의해도 어짜피 안들어줄 테지만...

난 이대로 살수없어.

**이 현실을 바꾸고 싶어. 방법이 있나구?**

바로,

### 중고등학생복지회(학복회)~!

**학복회**는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들의 현실을 바꾸려고 힘과 용기를 내서 이곳에 모여어.

하이텔 go sws

나우누리 go sgsws10

**한번 와봐. 우리한번 바꿔보자구.~!**

## 통신에서 오늘날의 기성세대가 피은글① 될지도.....

### 정말 답답한 현실의 딜레마.

서어나(황남희)

고등학교때 머리 쥐어짜고 독서실에 틀어박히다 대학가도 뭐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군요. 다만 고등학교때까지 성적이라는 것이 나를 줄세웠다면 이젠 나의 학교와 과가 나를 이 세상에 줄세우는 것 밖에...

두발구제 교복착용 자율학습 입시위주의 학교운영 등등...

결국 모든 현상의 원인은 학교자체가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엘리트가 사회를 잡고 뒤흔들고 너도나도 엘리트가 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혹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죠.

아무리 교복자율화시키고 자율학습 없애 보십시오 우리 나라 학생들의 귀결점은 언제나 "공부"입니다. 모든 것이 공부로 합리화되죠.

쓰리기청소부가 부끄러워 자식 얼굴 제대로 못보는 세상, 열심히 창의력과는 관계없는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사회가 정해놓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기성세대의 질서에 편입하는 것만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사회에서는 결국 수박겉핥기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인걸요.

우리 사회의 이 뿌리깊은 학벌의식과 문(文)을 숭상하는 구조는 일이년만에 이루어

## 통신에서 계속 이야기들만 피은글② 하고 있을텐가??

-magiclap(이혜영)

정말 우리나라 교육은 짜증납니다.

우리교육현실에대해서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우리를 무시할것 입니다. 제발 말로써만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도 언젠가 쓴 웃음을 지으며 ...

진 일이 아님을 익히 알고있을 때 정말 너무나 답답해져 오네요.

저도 학교와 독서실에 쳐박혀 대학이란 곳에 들어왔지만 엘리트를 생산해내는 대학의 과가 아니라면 언제나 뒷줄에 서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도대체 이 엄청난 사실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늘 뒤에서 한숨만 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기류에 편향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고민만은 접어들 수가 없네요 -\_-;;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에 들어와도 자기 자신이 연구한 졸업논문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기쁘고 대학들어와봤자 그게 그저일텐데요.

도대체 일탈이라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세상, 청소년은 없고 학생만 있는 세상 이런 한국을 어떻게해야 바꿀 수 있을지 정말 너무 답답하군요. 아무튼 여러분 힘내세요...

**나 이거  
불만이야  
넌  
안그래?**

**① 별점제, 그게문제?  
-글쓴이 비너투**

오늘 수학시간에 숙제점사를 했다. 그런데 난 깜짝 잊고 하지 않았다. 성상님께서 말씀 하셨다.

"숙제 안해온 아해들 나옴. 빨리 나옴."

"왜 안해옴? 반항임?"

"쌤임, 그거 아님. 진짜 깜짝 잊음. 벌 꼭 해오겠음."

"아해덜, 필요없음. 너네 다 별점 5점임. 그리고 언녕 앞발 내놓음."

"쌤임~."

퍼억,떡... 그렇게 나는 별점은 별점대로 받고 매는 맞을대로 다 맞았다. 숙제 안

해오면 별점준다고 5점이라고 말안했는데!!!

그리고 숙제 한번 안해온게 이렇게 매맞을 정도로 큰 죄인가?

꿀꿀한 기분을 안고 방장아해와 매점에서 쭈쭈바 하나씩을 물고 교실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혁~ 수학 선생님하고 마주쳤다.

"아해덜, 왜 걸으면서 먹음? 저지임?"

"엡?.."

"너 아까 그 아해 아님? 역시 별점 많이 쌓인 아해는 뻔함."

"반장아해, 너라도 잘 해야함, 이나라의 기둥임!"

그깟 점수로 사람을 저울질 하다니... 억울하다.

정확한 기준도 없이 선생님 맘대로 매기는 별점제...

기본 더럽지만 점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는 오늘도 굶는피(?)를 식힌다. 아우~



**내 인격이 체점된다?끔찍해..(노동현님 그림.)**

**나 이거  
불만이야  
넌 안그래?**

**② 짜증나는 보충수업  
-글쓴이 자두**

학교는 여러가지로 학생들을 피곤하게 한다. 그 중에 가장 짜증나는 것이 보충수업이다.

이런 보충수업을 또 들로 나누어 우리를 짓누른다.

첫째로 방과후 보충 수업.

내가 다니고 있는 H여고의 경우 '방과후 과외활동' 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짓고 능능 위주의 수준높은 강의를 지향한다고 떠들지만 실제로 해 본 결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난 수학보충을 하고 있었다. 아무 문제집에서 기준없이 복사한 문제를 가지고, 학생의 학업수준은 고려하지 않은채 1시간내내

혼자 떠들어댔다. 이런 보충수업 내가보기엔 차라리 학원 다니는게 훨씬 나은 것 같다. 성의 없는 수업내용.. 들어나 마나다. 이런 쓸데없는 보충수업에 우릴 붙들어 놓는데 한 푼하시느 학부모회의 몇몇 치마바람 아줌마들!! 교장선생한테 "왜 보충수업을 하지 않느냐" 떠들어댄다. 그러면 교장은 7교시 보충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교시에도 또다른 보충수업을 시행하도록하고.. 하지만 보충수업의 불필요성을 느끼는 우리들... 신청자는 없고, 교장은 교사들에게 신청자를 늘릴 것을 명령한다. 이걸 학생이나 교사에게 이중스트레스다.

더 웃긴건 무조건 신청해야 하고 보충수업 교재도 사야한다는 것이다.

4과목에 약 5만원-

영어:8,000원 수학:7,000원 작문:9,000원

국어:교과서

총액수만 해도 웬만한 단과학원 수강료다. 그렇지만 수업내용은 학업 신장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두번째로 방학 보충 수업.

이건 방학의 의미를 죽이는 행위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율이었는데, 올해는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방학하자 마자 그 다음날부터 다시 교복입고 학교가는 기분은 아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X같다. 수업료나 수업내용은 방과후 과외활동과 비슷하



**"호랑이로 보고 싶다!!" s고 화백이...**

다. 혼자 떠드는 교사, 줄고 있는 학생들. 이게 방학 보충 수업의 실체다.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통해서 시험진도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부분을 더 깊이있게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방학중 보충수업을 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돈 날렸다" 라는 말을한다. 학교는 방학이라고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을 붙잡고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학생들을 학교에 가둬둔다.

과연 바가지 수업비의 성의없는 수업 내용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글쓴이 자두

## 이 책 어때?

학복회에서 이 책을 갖고 토론했지롱.

(이한 지음/민들레 출판) 학교를 넘어서 ①

**교육문제는 없다.**

**단지 학교 문제가 있을 뿐이다!!**

학교에선 사실,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시간 때우는 일만 시킨다. 몇가지 가르치는 것이 있더라도 그건 단순 암기나 답을 찾는 반복 훈련과정일 뿐이다. 하다못해, 수학문제의 답도 '암기'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수업 내용도 교과서와 참고서를, 토시만 약간 바꾸어서 외우거나 그냥 읽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교사들이 읽는 교과서라는 책은 정말 책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찌집기를 한 '결레 책'이다. 최근호 한겨레21을 보면 국어 교과서 문장이 문법도 맞지 않는 엉터리라는 내용이 나와있다.

그럼에도 수업 시간에 판짓을 하면 혼나고 교과서를 외우지 못하면 폐인 취급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체벌과 낙제생 딱지를 피하기 위해 '하는 척'한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젊음과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이렇게 된 건 내신, 시험이라는 '무기'를 학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가 그런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건 교사가 칠판 앞에서 50분간 쇼를 하고나면 쇼를 구경한 학생들은 그만큼 교육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리라는 어른들의 이상한 환상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는 겉에서 보면 보람찬 '교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

생들의 시간과 자유와 젊음 그리고 인격마저 짓밟고 있다는 것을, 극소수의 학생들이 제외하고는 인정할 것이다.

더구나 학교는 '폭력'을 만들어낸다.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는 사실 있을 수 없다. 사실은 학교 자체가 폭력을 통해서 운영된다. 교사들의 별점카드, 체벌, 언어 폭력, 인격 모독, 사생활 침해, 성추행... 학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들로 얼룩져있다.

그리고 학생들간의 폭력은 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체 기합과 엽기적인 입시경쟁, 튀는 아이들은 눌러놓고 보아야 한다는 학력위주의 학교 운영이 학생들을 스트레스에 찌들게 하고 있다. 또한 서로의 개성을 용납하지 않는 군대식 교육이 폭력학교 문화의 원천이다.

다음호에선 학교 폭력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도록하자.



학교폭력의 진정한 원인은 뭘까?

## 소식지 만든다며?

임부인의 목소리.

①조한혜정교수

## - 드디어 '소식지'를 내는 학복회를 위하여....

작년에 나는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현장을 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청소년들의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개정한 것으로,

인권 선언문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아내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 아주 심하게 인권을 억압당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열성적으로 청소년 현장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 사회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관찰의 결과 내가 내린 결론은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이 있을 뿐이지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존재는 없다는 것이었다. 주변의 청소년들은 말했다.

"청소년 현장이 바뀌면 뭘해요? 달라진 것이 있나요? 청소년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알지도 못하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다행히 끝이어서 교육부에서 학생 인권 선언문을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에서 학생 인권 선언을 하겠다고 나왔으니 많은 것이 변화할 것이다.

나는 '국민의 정부'가 과연 '젊은 국민들'을 살려 내려는 결심을 했다는 생각에 내 심 기했다.

그러나 예정된 달이 지나도 끝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학생 인권관련 지침서 비슷한 것이 정해졌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내용은 학생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학교 생활에는 변함이 없다고들 한다.

청소년들이 점점 더 냉소적이 되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무거워지지만 하는 중에 학복회에서 소식

지를 내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그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무거운 짐을 덜어버린 기분이 들면서 무릎을 쳤다. "그래, 청소년들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정보화 시대에 가상공간을 자유롭게 여행해 다니며 어른들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도 하는데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진작에 학복회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어른들이 너무 나섰던 거 아닌가 몰라." 학복회가 통신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소식지를 통해 활동 공간을 대폭 넓히려는 시도는 지금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쩌면 내가 참여했던 청소년 현장 개정 작업이나

교육부에서 시도한 학생 인권 선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시작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끌어왔고,

또 스스로가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학교 생활 틈틈이 소식지를 준비하고 있을 학복회 멤버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자신의 인권과 시민권을 얻어내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날 많은 중고등 학생들을 위하여

내가 해 주고 싶은 말은 즐겁게 일하라는 것이다. 즐겁지 않으면 오래 일 할 수없고 오래 일할 수 없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나무를 키우듯 정성을 들여 소식지를 내기 바란다. 그러다 보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비의 작은 팔랑거림이 때론 태풍을 불러일으킨다.



이 글을 쓴 조한혜정님은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의 저자이다. 문화 인류학자이며, 현재 연세대 교수이다. 1990년대부터 청소년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현재 <http://www.cyberyouth.org>에 청소년 사이버 문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